



불신 키우는 의회… “책임정치 실종”

도의회 ‘보전지역 조례안’ 상정 보류 후폭풍
정의당 등 “도민사회 갈등 외면” 비판 목소리
출범 1년 안돼 두번째 상정 보류에 우려 키워

제주도의회가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표결에 부치지 않고 상정 보류하자 책임정치가 실종됐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22일 제3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했지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에서 원안 가결한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정 보류했다.

김태석 의장은 이날 본회의 직전 11대 의회 들어서는 처음으로 전체 의원 간담회를 소집해 협의 과정을 거쳤지만 찬반 의견이 팽팽하자 전

체 의원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상정 보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그대로 상정하자는 의견과 유보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결정적으로 서명한 의원들 중 일부에서 유보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결국 유보하게 됐다”며 “앞으로 3년 이상 남은 의회이기 때문에 갈등을 증폭시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의장 독단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상임위를 거친 안건을 본회의 표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비공개 간담회 형식을 빌어 상정 보류한

의회의 결정에 책임 정치가 실종됐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더구나 11대 도의회는 지난해 7월에도 상임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해군기지 국제관한식 개최 반대 결의안’을 포함해 출범 후 1년도 안돼 벌써 2개의 안건을 상정 보류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도의회 내부의 갈등을 이유로 상정조차 시도하지 못한 것에 많은 도민들은 실망했다”면서 “내부의 갈등은 격정하면서 도민사회의 갈등은 외면한다면 도의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천막초사람들’도 22일 성명을 내고 “도의회가 결정을 미루면 제주도민 간의 갈등만 심화된다”며 “책임 있는 정치를 하라”고 촉구했다.

표성준기자 sipyo@ihalla.com



제주특별자치도는 23일 도청 2층사 자유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표성준기자

“용역 오류투성이… 설립 타당성도 부족”

도, 어제 시설관리공단 설립 검토 용역 최종보고회
각종 수치서 오류 드러내… ‘부실 용역’ 우려 지적

제주도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기 위해 용역을 실시했지만 설립 타당성의 근거로 제시한 수치효과의 각종 수치가 오류로 드러나 부실 용역 오명을 받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3일 도청 2층사 자유실에서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의뢰한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30일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지 23일 만에 보고회를 진행한 제주도는 이날 오후 5시 타당성검증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하루 만에 다시 주민공청회를 열 계획이어서 부실 우려를 받고 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 지방공기업평가원 관계자는 “최종보고서상 하수도시설의 소요인력을 공무원 41명으로 산정한 것은 현재 상하수도본부 하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 인력과 다르다”는 상하수도본부 직원들의 지적에 “정확한 숫자가 아니다. 기간제 인력 등을 조정해야 하는데 보고서가 먼저 인쇄되다 보니 반영이 안됐다”고 답했다.

그러나 상하수도본부 직원들은 “다른 건 몰라도 숫자는 맞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 최종보고서가 맞느냐”며 “오늘 최종보고회를 인정할 수 없다. 수정해서 다시 진행하라”고 항의했다.

공영버스 업무를 수행하는 한 직원은 “공영버스는 1년 365일 오전 5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운행하기 때문에 교대 근무할 정산원과 정비원, 입출자관리원을 추가 요구했지만 용역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방공기업평가원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제주도의 운영계획안을 받아 타당성을 검토한 것”이라며 “요청대로 하면 수지가 악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영버스 사업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빠져야 한다”고 말했다.

와 함께 민주노총제주본부 관계자는 “오늘 최종보고회와 타당성검증심의위에 이어 내일 공청회를 하면 당장 설립심의단계에 들어가는 것”이라며 “당장 데이터의 오류가 발견됐는데 어떻게 공청회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표성준기자

양적성장 한계 부딪힌 바이오산업… 6년째 표류 ‘진흥계획’ 다시 세운다

도, 어제 수립 착수 보고회

지난 2013년 사업이 마무리되며 후속조치가 전무했던 제주 바이오산업 진흥계획이 다시 수립된다. 특히 이번 계획은 정부가 22일 발표한 바이오핵심 산업 혁신 전략과의 ‘시너지’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3일 오전 건설회관 8층 회의실에서 제주도 바이오산업진흥계획 수립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사업기간은 오는 11월까지이며, 사업비는 9950만원이다. 수행기관은 제주대 산학협력단이 맡았다.

이번 용역은 지난 10여년간 제주 바이오산업이 급속히 발전했지만 양적 성장이라는 한계가 드러남에 따

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급변하는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제주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기존 산업 육성의 성과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앞으로 10년간 집중 육성할 분야별 새로운 동력원 발굴이 추진된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제주형 바이오산업 육성 정책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로드맵과 핵심사업 발굴이 진행됐다.

구체적으로 제주도 법제계획과 연계하는 제주바이오산업 비전 목표와 전략을 마련하고 건강부디생물산업 기반의 제주특화바이오산업을 도출하고 중점 추진사업을 발굴하는 계획을 잡고 있다. 검토 분야는 ▷전

략·정책 ▷향장 코스메틱 ▷헬스푸드 ▷농생명 바이오 ▷해양 바이오 ▷천연물의약품 등이다. 최근 신설대학으로 선정된 제주대 약대와의 연계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용역진은 “그동안 제주도가 수립·추진한 ‘제주생물산업기술발전 10개년 계획’ 시존2의 성격”이라며 “앞으로 10년간 제주도의 바이오산업 발전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비전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및 중점사업 발굴, 기술로드맵 (TRM) 제시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가 최근 바이오헬스 산업을 ‘비메모리 반도체’와 ‘미래형 자동차’와 함께 차세대 주력 산업으로 선정하고, 오는 2025년까지 혁신신약과 의료기기 개발 등 바이오 분야에 정부 연구개발 (R&D) 자금 4조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제주도 바이오산업 진흥계획이 정부 구상과 맞물려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이소진기자

대통령, 9개 부처 차관급 인사 단행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부와 통일부 차관 등 차관급 인사 9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문 대통령은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김성수 한국화학연구원 원장, 외교부 1차관에 조세영 국립외교원장, 통일부 차

관에 서호 국가안보실 통일정책비서관, 국방부 차관에 박재민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을 임명했다.

또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에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 보건

복지부 차관에 김강립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 국토교통부 2차관에 김경욱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 손병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을 임명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가 가지고 있는 국정 과제를 정확히 알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실현해낼 수 있는 적임자를 발탁했다”며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청와대=부미현기자

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에 오영훈 의원

지난 22일 의원총회에서 임명
“4·3특별법 통과 등에 노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사진)이 더불어민주당 정무직 당직인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에 임명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와 의원총회에서 오 의원 비롯해 이수혁·기동민·조응천·김병관·



김병욱 의원 등 5명을 정책위 부의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제20대 국회 개원 후 원내부대표와 원내대변인 등을 거쳤다.

오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나라는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며 무엇보다 ‘4·3특별법’이 민주당 당론 법안으로 채택돼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부미현기자

삼양~신촌 3차로로 확대

제주시 삼양검문소에서 신촌교차로까지 이어지는 일주도로의 차로가 확대된다.

제주도는 올해 국비 13억원을 투입해 신촌교차로에서 제주 방면에 이르는 지방도 1132호선에 1개 차로(2차로→3차로, 연장 L=880m, 폭 B=3.5m)를 추가 신설한다고 23일 밝혔다.

삼양~신촌 일주도로가 3차로로 확대되면 신촌에서 삼양 방면 우회전 차량의 진행과 신촌에서 연삼로 방면의 진행 차량이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표성준기자

제9회 한림초등학교 총동문 한마음축제

▶ 일시 : 2019년 5월 26일(일요일) 10시 / ▶ 장소: 모교운동장

· 주 최 : 한림초등학교총동창회 · 후 원 : 한림초등학교

동문들의 많은 참여로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과 서로를 이해하며 한마음으로 어우러지는 한마당 축제로 모교사랑 및 애교심 고취로 하나 된 총동창회의 위상 정립

총동창회 임원

회 장 장 봉 구 (43)	사무국장 진 영 범 (56)	여성이사 양 인 실 (54)
직 전 회장 고 용 보 (42)	기획이사 박 제 진 (53)	여성이사 임 행 복 (58)
상임부회장 강 승 후 (44)	조직이사 강 학 인 (54)	여성이사 고 금 양 (55)
감 사 김 신 성 (47)	재무이사 박 은 남 (58)	사무처장 조 현 수 (63)
감 사 고 두 현 (54)	총무이사 양 덕 원 (57)	
외무부회장 이 동 화 (45)	홍보이사 이 수 훈 (60)	
내무부회장 양 종 홍 (46)	체육이사 양 성 수 (61)	
행사부회장 고 찬 현 (47)	설의이사 고 동 남 (59)	
여성부회장 박 기 선 (46)	행사이사 고 상 준 (59)	

회기별 회장

제32회 양우용	제41회 김형연	제48회 진영성	제55회 김인숙
제33회 장용식	제42회 김명희	제49회 김봉진	제56회 양석익
제34회 홍기종	제43회 계호남	제50회 문지택	제57회 강신혁
제35회 고재웅	제44회 강남철	제51회 문성국	제58회 김상현
제36회 강승찬	제45회 임운찬	제52회 함성범	제59회 장우철
제39회 강석희	제46회 장기방	제53회 고영욱	제60회 이종후
제40회 강석호	제47회 김신성	제54회 정영성	제63회 문창수

문의처 · 회 장 (장 봉 구) 010-3692-4591
· 사무국장 (진 영 범) 010-3696-9967